

횡단보도 1000곳에 LED조명 추가 설치

인지력 높여 교통사고 줄이기 올 300곳에 통합 가로시설물 도시미관 개선에도 도움

광주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무단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1000곳에 LED 조명을 추가 설치한다. 이번 LED조명 추가 설치 사업은 가로 등 조명효율이 저하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 횡단보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운전자의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도시에 도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2월부터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총 15억원을 투입해 300곳의 횡단보도에 교통신호등과 LED가로등, 도로표지판 등이 하나의 지주로 결합된 '통합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 특히 최근 3년 간 무단횡단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산구 사암로 롯데리아 하남점부터 우산월곡시장 등 87곳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통합 가로시설물은 지난해 5월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청, 도시공사, LH 등 10개 기관 22명이 참여한 '가로시설물 통합설치

협업팀'이 상호 간 자문 및 3차례에 걸친 협업회의를 통해 발굴한 개선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10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통합 가로시설물을 설치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은 보완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가로시설물이 개별 설치되고 기관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 시인성 방해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1월부터 5월까지의 특별교부세 20억원 등 총 22억원을 들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일대와 남부대 주경기장, 염주체육관 등 주요 경기장 수송로의 노후 교통시설을 정비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무단횡단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2019년 세계수영대회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1운동·임정 100주년 사업 10일~16일 보조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관련단체와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애국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3·1운동 재연행사 ▲100주년 관련 학술대회 ▲콘텐츠 제작 ▲기획전시회 ▲독립운동역사탐방 프로그램 ▲화합한마당행사 ▲광주학생운동기념회관 입구 벽화 조성 등 8개다. 시는 2억원을 투입해 사업당 500만~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6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0일부터 16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온기매트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광주시 동구와 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학동주민센터에서 인택 동구청장, 구제길 위원장, 수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위기가정 세대에 난방용 전기매트 30세트(4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동구·조선대 수영선수권 성공 손 잡았다

도시재생·지역상권 활성화 주민 일자리 창출 협력 협약 광주시 동구와 조선대학교가 도시재생 및 지역상권 활성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오는 11일 구청 상 황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지역상생 위한 협업체계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 ▲장미축제 지역특성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하이다이빙) 운영 협조 ▲지역주민대상 평생교육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창업

교육 확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협력 ▲시민을 위한 캠퍼스 숲길조성 등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조선대학교가 가진 창의적 역량과 인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양 기관의 지역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의 제를 발굴해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내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조사

표준지 제외 4만3825필지 대상 광주시 서구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8일 서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서구 지역 토지 가운데 표준지를 제외한 4만3825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 개별 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 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및 기타 공적규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

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4월15일부터 5월7일)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지가결정·공시일(5월31일) 이후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5월31일부터 7월2일) 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지가의 산정·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공원 시설 고장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서구 1019곳에 QR코드 부착 운동기구 등 확대 부착 계획

광주시 서구가 QR코드(사진)와 개별 관리번호가 인쇄된 관리표찰을 공원 등에 부착, 현장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구 지역내 공원 등 1019곳에 개별 QR코드와 관리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관리표찰 부착작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고장 등주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해당 공원 등 위치 정보와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아도 해당 등주의 관리표찰에 인쇄되어 있는 개별 관리번호만 알려주면 별도 위치설명이 필요 없이 고장신고가 접수된다. 서구는 이번 시스템 활용도에 따라, 공원내에 설치되어있는 운동기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이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북구, 제2기 구민감사관 15명 공개 모집

임기 2년 무보수 명예직 ·전문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분야(토목·통신·회계·전산정보·보건·의료·소방·기계·전기)는 광주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북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주말·공휴일 제외)하거나 팩스(062-510-1457) 또는 이메일(aftershock3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25일까지 자체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1월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062-410-6925.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북구가 오는 18일까지 열린 행정 구현에 기여할 제2기 구민감사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 '구민감사관'은 구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구 자체·특정감사 등 실지감사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북구인 만 19세 이상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주민이며, 일반

동구, 합창단 단원·지휘자 31일까지 모집

동구민 누구나 지원 가능 고 지휘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입단 또는 지휘자를 희망하는 지역민은 동구청 홈페이지(www.donggu.kr)에서 입단지원서·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등을 동구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동구합창단은 1996년 10월 창단 이래 정기연주회 및 국내외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애환심과 구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608-2403.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동구가 동구합창단 단원과 지휘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동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 중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모집 부문은 남성은 테너·베이스, 여성은 소프라노·알토 등이다. 합창단을 2년 동안 이끌 지휘자(1명)도 모집한다. 국내·외 대학에서 음악전공 학사학위(4년제 대학)이상을 취득하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2번지의 4필지, 대지 약540평 (343-2-141평, 343-1-260평, 344-30평 / 341-80평,340-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6차선 도로접, 전면75M
- 대출-22억7000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상담후결정
- 문의 - 010.3605.5000